

U대회 선수촌 마찰 조정 광주시 대책기구 만든다

시·조합·시공사·전문가들 참여 재건축 추진

광주시는 4년 앞으로 다가온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을 대회 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기 위해 '2015하계 U대회 선수촌 건립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오는 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재건축을 통한 선수촌 조성과정에서의 물발변수를 최소화하고 마찰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3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투명하고 적절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 조합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만들겠

다"고 밝혔다.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이 주민과 건설업체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협의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진협의회는 광주시 공무원 2인, 광주시의원 2인, 화정·염주(재건축사업)지구 구의원 2인, 화정지구 재건축조합 1인, 광주도시공사 1인, 시민단체 2인, 학계전문가 1인, 법률전문가 1인 등 12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수촌 조성을 위한 세입자 이주·철거에서부터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벗어날 주민 간, 주민과 행정

기관 또는 시공업체 간 마찰 및 갈등, 시공 후 빗어질 교통 및 환경·경관 문제, 미분양 시 대책 등이 협의회의 주요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공기를 최대한으로 좁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성될 추진협의회는 선수촌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주·철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장애요소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자체가 국내외에 그 사례가 없는 데다 어떤 문제가 불거질 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3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구시 달성군 소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신성철 초대총장 취임식장에 들어가기 전 신공항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동남권 신공항 계속 추진돼야"

MB 정면비판...李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화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 과장을 예고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열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장 취임식에 앞서 기

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동남권 신공항을 향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는 질문에 "제 입장은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예측이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날 박 전 대표의 비판이 '친이(친이명박)계' 대 친박(친박근혜)계 간 갈등 구도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느라 부심했다. 때문에 정치권의 시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공항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쏠리게 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따라 작년 8월 청와대 회동 이후 아슬아슬하게 유지돼온 양자 간의 화해 기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세종시 정국 때의 극명한 대립구도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직접 입장

을 밝히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책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는 박 전 대표 언급에 대한 입장 ▲최근 정치·외교 현안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공항 건설 공약이 결과적으로 백지화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할 예정이지만, 지난 2009년 세종시 건설 공약 수정 때처럼 공식 사과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시환경 광주정상회의 100개 도시 참여

광주시-UNEP 협약...10월12~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광주시와 UNEP(국제연합환경계획)는 지난 31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아랍 호빌라 UNEP 지속가능 소비생산 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1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공동개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종합적 도시환경 평가지표와 도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UN '환경 전담 국제정부 간 기구'인 UNEP는 이번 UEA광주정상회의를 계기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가간 협력이 아닌, 각 도시 간 협력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뒤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2년마다 정례화하는 방안은 물론 지난 1997년 국가 간 이행 협약을 담은 광주선언 채택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랍 호빌라 협력관과 박영우 아태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아랍 호빌라 UNEP 지속가능 소비생산 협력관이 '2011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공동개최 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역 사무소장 등 UNEP 대표단은 이날 강운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랍 호빌라 협력관은 "UEA 광주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비타트 등 전세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광주의 탄소순환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진사례들을 다른 도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는 광주시, UNEP,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3자 공동주최로 '녹색도시, 더 나은 도시(Green City, Better City)'라는 주제로 오는 10월12일부터 13일까지 전 세계 100여개 도시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공항 백지화 반발 확산

영남권의원들 당국자에 책임 돌려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이 불꽃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데 그쳐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까지 거론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일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 31일 의원회관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백지화 수용 거부'를 표명하고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추진을 계속하기로 했다.

신공항 입지로 경남 밀양을 주장해 온 경북지역 의원들도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가진 뒤 성명서를 통해 "1300

만 영남 지역민을 우뚝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보좌를 잘못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사태에서 봤듯 정부 정책의 수행과 집행과정이 미숙하고 거칠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 내각과 참모들의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입지) 선정기간을 길게 끌면서 문제를 확대시킨 것은 정부 당국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문책문을 꺼내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병헌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옳다"

박지원 "대통령 탈당 권유 경청해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 민주당이 과소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차피 2025년까지 김해공항이 포화로 가고 인천공항이 중장기적으로 포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한가 여부를 측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어떻게 단 하루 만에 국책사업이 백지화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백지화 과정도 문제"라며 "평가단의 평가절차가 사실상 갑작적 분위

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동남권 신공항을 헌신 짚처럼 버리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탈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이를 경청해 상응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공항, 원전 방사능 등 무엇 하나 믿을 수 없어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못 믿을 형편"이라면서 "따라서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나오고 있는 탈당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古家 고향의 맛- 전통 고가약오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4월 1일 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게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완비

예약문의 062-226-8254

광주일보 창간 50주년 1962-2011

2011. 4. 20

구광주은행 본점, 대진중권, 원각사, 구안국은행 금남점, 고가약오리탕